



K3



K5



K7



K9

# 기아차 'K 시리즈' 출시 10년...550만대 팔렸다

기아자동차 대표 세단 'K 시리즈'가 출시 10년을 맞았다. 신모델 출시 때마다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관심을 끈 K 시리즈는 지난 10년간 550만대가 팔려나가며 기아차의 '효자' 노릇을 해왔다.

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K 시리즈의 역사는 기아차가 2009년 11월24일 준대형 세단 K7을 국내에 출시되면서 시작됐다.

K7 출시 당시 기아차는 모델명과 관련, 알파벳 'K'는 기아차(Kia), 대한민국(Korea)의 대표 글자인 동시에 '강함, 지배, 통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Kratos'에서 따왔다고 소개했다.

K7 작명을 위해 15개월 넘게 해외 네이밍 컨설팅 회사의 자문을 받았고, 뇌과

학자로 유명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재승 교수와 함께 차명 검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공을 들였다.

K7 출시 다음해 중형 세단 K5를 선보인 기아차는 2012년 준중형 세단 K3과 럭셔리 대형 세단 K9을 함께 내놓으며 K 시리즈 라인업을 완성했다.

K3·K5·K7처럼 영문 알파벳에 숫자를 조합하는 방식의 작명법은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C(소형), E(중형), S(대형)에 배기량 숫자를 조합한 C200, E300, S350 등의 모델명을, BMW는 세단에는 3·5·7 등 숫자를,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는 X와 함께 크기에

## 5대 중 1대꼴...K3 신형시장서 인기 신형 K5 앞세워 '제2의 전성기' 기대

따라 숫자를 붙여 X3, X5, X6 등의 모델명을 사용한다.

이런 모델명은 국내에서는 르노삼성자동차가 SM 시리즈(SM3·5·7)에 처음 도입했고, 기아차가 K 시리즈 라인업을 완성하면서 익숙해졌다.

K 시리즈는 디자인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새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기존 디자인 정체성을 이어가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시도로 기아차 디자인을 선도한다

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 K5가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레드닷 어워드에서 한국차 브랜드 최초로 자동차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10년 동안 K 시리즈가 수상한 디자인상은 15건이 넘는다.

K 시리즈는 경쟁이 치열한 중대형 자동차 시장에서 기아차 실적을 견인하는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K7은 출시 직후 '국가대표급'으로 불

리는 현대 그랜저를 분기별 판매에서 뛰어넘는 실적을 냈고, K5 역시 '국민차' 소나타를 월간 판매 실적에서 제치는 등 저력을 보였다.

디자인 경쟁력을 앞세운 K 시리즈는 2009년 말부터 올해 10월까지 세계 시장에서 총 548만8천121대(공장 판매 기준)가 팔려나갔다. 이는 같은 기간 기아차 전체 판매의 19.4%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상용차를 포함해 기아차가 판매한 차량 5대 중 1대가 K 시리즈인 셈이다.

차종별로는 K3가 253만3천238대, K5가 244만9천550대로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많이 팔렸고, K7이 44만6천286대, K9이 5만9천47대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국내 127만303대, 수출 156만1천635대, 해외공장 판매 265만6천183대를 기록해 해외 판매 비중이 76.9%를 차지했다.

K5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특히 강세를 보였고, K3는 신형시장에서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는 올해 하반기 부분 변경 모델로 출시한 K7 프리미어가 월평균 7천대씩 팔리며 판매 효조를 보이고 있고, 강렬한 인상으로 돌아온 K5가 지난달 사전예약 사흘 만에 1만28대 예약되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는 등 관심을 받고 있어 K 시리즈 '제2의 전성기'가 열릴지 기대하고 있다. /임후성기자



## 기아차 광주공장, 행복나눔 연탄 봉사

기아차 광주 3공장 현장관리자들이 추운 겨울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조립3부 주임, 그룹장, 파트장으로 구성된 현장관리자 모임 '행복한 사람들'은 지난달 30일 서구 서창동을 찾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행복나눔 연탄봉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날로 추워지는 겨울 날씨 속에서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실시됐다.

오전 9시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연탄봉사에는 기아차 광주공장 조립3부 현장관리자 3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탄과 이불을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가구에 배달했으며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하나뿐 연탄을 나르는 현장에는 내내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다.

'행복한 사람들'은 이날 연탄 2천장과 30세대에 이불을 배달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이 난방비 부담을 덜어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연말에 연탄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작은 일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기아차에 보내주시는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 광주 3공장 조립3부 현장관리자 모임 '행복한 사람들'은 지난 2017년 남구 월산동에 연탄 3천장을 시작으로 지난해 북구 임동, 그리고 올해 서구 서창동까지 매년 겨울 지역사회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세대를 위한 겨울철 난방 봉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임후성기자

## 현대차, 전기차 초고속 충전설비 '하이차저' 첫 선

20분 만에 80% 충전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초고속 충전설비 '하이차저(Hi-Charger)'를 선보인다. 2일 현대차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전문업체인 대영체비추와 함께 개발한 '하이차저(Hi-Charger)'는 국내 최고 수준의 350kw급 고효율·고효율 충전기술이 적용됐으며, 미래 지향적 디자인을 담은 신개념 전기차 충전 공간으로 설계됐다.

800V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의 경우 '하이차저'를 이용하면 20분 내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해져 전기차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대자동차 '하이차저'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 부분 자동화 방식을 적용해 사용자가 전기차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충전 전문업체인 대영체비추와 함께 개발한 '하이차저(Hi-Charger)'를 선보인다. 사진은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 설치된 하이차저.

충전시 연결선의 무게를 거의 느끼지 않고 손쉽게 충전 커넥터를 연결할 수 있

도록 설계해 충전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현대자동차는 '하이차저'와 연동되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이용자에게 출발지와 목적지 경로 상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를 추천하는 '최적 경로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며, 현대자동차 고객의 경우 '충전 예약 및 결제', '충전 중 차량 진단' 등 특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26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 초고속 전기차 충전설비 '하이차저' 2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으며, 전기차 보유 고객 등 관계자들을 초청해 '하이차저' 사용법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게 했다.

현대차는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 이용 고객 반응 등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전기차 초고속 충전설비 '하이차저'의 설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임후성기자

## 호출하면 배차... '수요응답형 버스' 시범 서비스 개시

현대차가 인천시와 함께 신개념 모빌리티 솔루션을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이동 편의성 향상에 앞장선다.

현대자동차는 인천시와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영종국제도시에 수요응답형 버스 'I-MOD(아이-엠오디, Incheon-Mobility On Demand)'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I-MOD는 승객이 호출하면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경로가 생성되고 배차가 이뤄지는 수요응답형 버스로, 노선 체계가 갖춰지기 시작하는 도시개발 중간 단계에서 주민들의 교통 이용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신개념 모빌리티 솔루션이다.

시범 서비스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영종국제도시 350여개 버스 정류장을 통해 제공되며 솔라티 16인승 차량 8대로 운영된다. 기존 버스가 승객 유무와 관계 없이 정해진 노선의 버스 정류장마다 정차하

는 것과 달리 I-MOD는 승객의 위치와 목적지에 맞춰 실시간으로 정류장을 정해 운행한다.

I-MOD 앱을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차량 위치와 이동 경로를 분석해 승객과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차량을 배차하고, 신규 호출 발생시 운행 중인 차량과 경로가 비슷할 경우 합승시킴으로써 경로 구성 및 배차가 이뤄진다. /임후성기자

**광주의 자랑**  
**최고의 차량과 최상의 서비스**  
**28석 무등, 45인승 80여대 보유**  
 <관광, 예식, 회사 워크숍, 기업체 통근 차량, 예약상담 문의>

**예향고속관광**  
 YEHYANG TOUR

(유)예향고속관광 (전세버스, 여행사)  
 홈페이지 : www.yh-bus.com  
 전화 : 062-944-5775 팩스 : 062-944-5995

**기업 채용예정자 모집**  
<http://www.honam.or.kr>

**2020학년도 전액무료 훈련** **2월 중 개강**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제품디자인(3D 프린팅)
스마트자동화제어	전기공사(내선공사)
금속재료용접(특수용접)	한식·양식·중식·일식
자동차부품조립 및 관리	제과·제빵·바리스타 / 네일·메이크업·피부

**타일+조적·미장 / 타일 (주말, 야간반)** **무료취업알선, 구인구직자모집(062-369-1829)**

※ 훈련과정은 규정에 의해 과정명과 개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도 견학 및 접수 가능!!**

**광주공동훈련센터 (재)호남직업전문학교 상담문의 605-8000**